목회자 칼럼

외롭지 않은 비행(飛行)

김효숙 목사

교구수련회가 열리던 날, 화장실 앞에서 잠시 멈추어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 해 전 미국에 연수차 갔을 때 공항 화장실에서나 보았던 그 장면을 목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화장실을 이용하려는 분들이 아무렇게나 서 있다가 운좋게(?) 먼저 열린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순서대로 들어가기 위해 질서있게 줄을 서 있었던 것입니다. 멀리서 발꿈치를 들어 그 줄의 맨 앞에 서 있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낯선 분들이있습니다. 아마도 수련회에 참석하기 위해 오신 타교회 교우들이 먼저 줄을 서자, 그 뒤에 긴 줄이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조금 전에 품었던 생각이 떠올라 급히 돌아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련회에 관해 안내를 하시던 담임 목사님께서 다음 수련회의 방향 설정을 위해서인지 타교회에서 오신 분들을 확인하셨습니다. 30% 이상이나 되는 많은 분들이 손을 드셨고, 그때 손님들에 비해 주님의교회 교우들이 많이 참석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마음 한 켠이 씁쓸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손님으로 오신 분들이 오히려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멋진 풍경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항상 '우리'(?)를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의 생각이 소아적(小我的)임을 느꼈기에 부끄러움으로 서둘러 돌아섰던 것입니다. 보다 더 큰 우리를 생각하며….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롬 15 : 7-표준새번역)

신앙이 싹트는 것은 신 앞에 철저히 단독자로 설 때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신앙이 자라가는 것은 다른 이치일 것입니다. 혼자일 때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 사이의 거리를 존중할 때에, 좋은 자양분을 얻은 식물처럼 훨씬 더 빠르게 자라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다양성은 하나됨을 포기하게 하는 방해 요소가 아니라 더 큰 힘을 만드는 에너지가 되고, 우리 사이의 거리는 신앙의 폭을 한층 더 넓히는 귀중한 자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겨울이 다가올 즈음이면 철새들은 V자 모양으로 떼를 지어 남쪽으로 날아갑니다. 새들이 그렇게 이동하는 데는 의미 있는 이유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떼를 지어 다님으로써, 한 마리씩 따로 이동할 때보다 71% 정도 빨리 이동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앞에 있는 새가 날개를 움직일 때 발생하는 공기의 움직임이 뒤따르는 새들의 비행을 더 쉽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비행하다가 선두에 선 새가 지치면, 그 새는 V자의 맨 끝으로 이동하고 다른 새가 선두에 나섭니다. 한편 뒤에 있는 새들은 앞의 새들이 행복하게 비행할 수 있도록 소리를 내어 격려한다고 합니다.

뛰어난 학자였던 아볼로가 천막을 만들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에게서 오히려 가르침을 받아 더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이끌었던 모습, 라이벌이었던 바울과 아볼로가 동역자가 됨으로 초대 교회가 더 아름다워졌던 때의 일이 그립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사이에 놓여진 길을 건너갈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는 서로를 더 아름답게 세워주며 1+1=2+α가 되는 비밀을 깨달아 가게 될 것입니다.

손님 교우들뿐 아니라 늘어 가는 새 식구들과 함께 우리 앞엔 건너야 할 길이 많습니다. 바로 내 앞에 놓여진 길만을 내려다보며 분주히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따금 눈을 들어 함께 길을 걷는 다른 이들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더 좋은 세상을 향해 외롭지 않은 비행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함즐함울

즐거워 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 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롬 12:15)

제20호 (격월간)
발행일 1999년 9월
발행처 주님의교회 출판부

(138-220)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50-4
(정신여중 · 고 교내)
주님의교회
T. 416-5181~2 F. 416-5180
인터넷 ID : http://www. Lord - church. or. kr

CONTENTS

1
외롭지 않은 비행(飛行) / 김효숙 목사
2
댕큐 하나님! / 임동진 장로
3
하나님 우째 이런 일이… / 차경은 집사
4~5
특집 / 섬기는 자의 기쁨
6
99 교회학교 여름수련회 풍경
청년2부 전도여행을 마치고
7
교회소식
교우동정
신앙 클리닉
8
창립 10주년을 맞은 서울 모테트 합창단
의학상식 / 김재중 집사
시 / 좌주희(소년부)

시론

댕큐 하나님!

임동진 장로(74구역)

TV 드라마 30년! 누구든 중년을 훨씬 넘어버린 나이라면 그 인생 여정 속에 밑줄을 칠 만한 대목이 어디 한두 군데이랴. 그러나 조금은 특별한 직업(? 지금도 나는 직업이라고 생각지 않고 예술을 한다고 생각함)을 가지고 살아온 나이기에 이야기의 모양새가 약간은 다른 것 같다. 젊음을 주체 못하던 피끈기웠던 청년 시절. 세상사 무엇에 그리도 분노했던지 나의 눈빛은 마치 먹이를 잃어버린 맹수의 그것과도 같았다나(제3자의 말).

예술 · 철학은 혼자 하는 양 턱없이 긴 장발. 일부러 속지를 잔뜩 넣어 두껍게 키운 연극대본. 목소리는 늘 선망의 대상이었던 대선배 연극배우 C씨를 닮은 듯 한껏 내려깐 목소리로 셰익스피어의 맥베드나 스타니슬라브스키의 연출론을 꽤나 아는 척 논하며 한껏 멋을 부리던 그 시절. 항상 나의 가슴 속 깊은 곳에는 그야말로 폭발 직전의 화산처럼 분출하지 못하고 감추어진 연기력이, 언제나 세인들의 뜨거운 갈채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소망이 있었다.

바야흐로 탤런트 입문 5년째 되던 해. 학생 연극을 거쳐 소극장 운동시절부터 익히 알던 J선배. 그는 당시 분명 장안을 흥분시킬 만한, 새로 기획중인 일일드라마의 연출을 맡게 되었다. 그 드라마의 극중 인물 중 야성적이며 카리스마가 넘치는 일본인 헌병 중위 하도바야시. 제 나라 일본이 조선에 행하는 비도덕적 만행에 회의하는 사나이… 그러나 현실 앞에 충성할 수밖에 없는 남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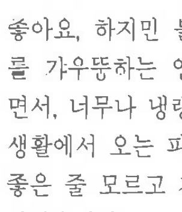
오! 이 매력덩어리 사나이, 이 역할은 참으로 나를 위하여 만들어진듯한 역할이었다. 이 역할이 나에게 주어진다면…! 오! 이때를 위하여 지금까지 얼마나 뼈아픈 인고의 시간을 보냈던고! 말을 타고 달리는 주인공 뒤에 창을 들고 헐떡거리며 짚신발로 뛰어야 했던 포졸 갑 · 을 · 병 중 병. 흥건히 술에 취해 슬픈 사랑의 독백을 하고 있는 주인공 옆 테이블에 앉아 숨을 죽이고 병풍 노릇을 해야 했던 카페 손님 A · B · C 중 B. 그처럼 수없이 치루어야 했던 단역… 혹은 엑스트라의 과정. 그것은 바로 이날을 위한 뼈아픈 훈련이었고 값진 전초전이 아니었던가!

연출자 J선배를 만나는 길밖에. 나는 J선배를 만났다. "J선배님!" "왜?" "이번 작품의 그 하도바야시 정말 멋진 인물 같아요." "그래! 매력 있지?" 누가 읊어보라는 소리도 안했는데 나는 그 인물의 대사를 마구 지껄여 본다. 그리고 J선배의 얼굴을 힐끗 훔쳐본다. 은근한 미소에 감추어진 J선배의 생각은 과연 무엇일까? 이러기를 며칠…. 여전히 그는 묵묵부답이었다. 잠이 오지 않는다. 아니 눈을 감으면 하도바야시로 분장한 나의 얼굴이 여러가지 모습으로 스치곤 한다. 또 며칠이 흘렀던가!! 어느 날 야심한 시각, 누군가 대문을 두드린다. 주인집 아주머니가 우리 방에 대고 소리친다. "누가 찾아왔어요!" 방송 1기 후배인 K군이다. "형! J 연출자가 빨리 형을 데려오래!" 야-호! 드디어 행운은 나에게로구나! K군과 함께 궁색한 형편에 택시를 잡아 타고 삼청동으로 향한다. 나를 부르러 온 K군이 어찌나 사랑스러워 보이던지. 두 사람은 J 연출자 앞에 마주 앉았다. 잠시 침묵. 나는 마음 속으로 소리친다. 'J선배! 빨리 얘기하세요. 하도바야시 역할을 잘좀 해다오! 하고.' 드디어 입을 여는 J선배. "동진!" "예! 말씀하세요!" "요즘 바쁘니?" "무슨 말씀이세요? 전혀 바쁘지 않아요!" "그럼 다행이다. K군이 하도바야시 역할을 맡게 되었는데, 그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연기 지도 좀 해다오. 더도 말고 일주일만!" 모든 것이 멈추는 것만 같았다. 잠깐 호흡이 멈추었다. 느닷없이 귀뺨을 맞은 듯 귓속에 이명이 일었다. 얼마 후 테이블 위 자명종의 초침 소리가 서서히 크게 들려왔다. 얼마나 흘렀을까…. 목구멍에서 새는 비명 같은 나의 슬픈 호흡 소리를 J선배는 들었는지! 이 세상에서 가장 슬퍼 보이는 쓸쓸한 미소를 보이며 나는 "예! 알았어요!" 사연인즉, 그 일일드라마를 집필하는 작가 모씨가 K군 아버지에게 엄청 신세를 졌던 관계라나…! 연출자 J선배의 집을 나선 나는 삼청동 언덕배기를 내려오다 걸음을 잠시 멈추고 밤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유난히 가을밤의 별들이 반짝이는듯 하였다. "동진! 착각은 자유야. 닭쫓던 개 지붕 쳐다보기네!" 나를 놀리는듯 하였다. 지긋이 입술을 깨물고 다짐해본다. 그래, 두고 보자. 언젠가는 내 몫을 찾으리라. 꼭! 꼭! 내 몫을 찾으리라!

그후로 또 몇 년. 나는 참으로 귀한 나의 몫을 찾았다. 하도바야시 역할보다 아니 그 어떤 주인공 역할보다 귀한 것. 은밀한 가운데 나를 불러주신 그분! 그분은 내게 속삭인다.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배역을 너에게 맡길 거야.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와 같은 배역을…! 주님의교회 금번 99년 여름 교구 수련회에 당회장 목사님의 말씀 중,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반드시 어떤 매개체를 통하여 우리를 성숙시켜 가신다는 말씀. 그 매개체의 역할을 하는 것은 사람일 수도, 고난의 환경일 수도 있다는 말씀. J선배! 그때 진정 고마웠어요! 잔잔한 분노(?) 스스로의 다짐! 그래서 한눈 팔지 않고 연기자 외길, TV 드라마 30년!

레디 카메라! 연출자가 외친다. 나는 수많은 문무백관과 군졸들을 뒤로 하고 선두마에서 의젓이 앞으로 향한다. 수십 명의 가마꾼이 왕을 태운 연(임금이 타고 다니는 대형 가마)을 힘껏 어깨 위로 받든다. 연상에 앉아 있는 나는 지긋이 눈을 감고 보료에 기대어 속삭인다. 하나님, 연을 들어올려 받드는 저들을 피곤치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갑자기 연출자와 카메라맨이 합창을 한다. "장로님! 눈뜨세요! 카메라 돌고 있어요!" 히히… 하나님! 쟤들 보래요! 재네들이 지금 나보고 장로님! 하고 소리쳤어요. 저들이 지금 내가 누구와 속삭이는 줄 모른답니다.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오! 나의 주님! 댕큐! 하나님!

기고



하나님 우째 이런 일이…

차경은 집사(2구역)

"또, 파리?" 하며 파리 근무 발령에 시큰둥한 표정으로 아무런 기대감 없이 따라 나선 두 번째 프랑스 생활이었습니다.

"France is all right, but the french is …" 하며 (불란서는 좋아요, 하지만 불란시 사람은…) 말하기 곤란한 듯 고개를 갸우뚱하는 영어권 사람들의 표현에 진적으로 동감하면서, 너무나 냉랭하고 무관심해 보이는 사람들과 첫 해외생활에서 오는 피곤함, 서툰 살림에 애까지 낳고 기르느라 좋은 줄 모르고 지냈던 십 년 전의 인상이 떠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저희는 전의 그 목사님이 여전히 계시다는 걸 알고 십 년 전에 다니던 그 교회를 다시 찾아갔고, 해외에 나가면 늘 그랬듯이, 부부모임 구역성경공부에도 참석하며 여러 교우들과 친교도 하면서 바뀐 교회 생활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떠나는 성도들이 봉사했던 자리를 남아 있는 자들이 나누어 메워 가면서 구역 식구간에도 여전도회원간에도 한 식구 같은 정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누린 특권이랄까. 고국의 훌륭하신 목사님들, 또 오지에서 선교하시는 귀한 선교사님들이 자주 방문하셔서, 가까이 뵙고 생생한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개인적으로 뜨겁게 은혜를 사모하기 시작했던 무렵의 박 목사님을 모시고 신년 특별 집회를 한 것, 아직도 우릴 기억해 주시는 결혼 주례 서주신 오 목사님을 만나 뵈었던 반가움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러던 중 담임 목사님께서 안식차 몇 달 귀국하시게 되었고, 마침 유럽에 와 계시던 임영수 목사님께 어렵게 청하여, 임 목사님께서 97년 10, 11월 두 달 정도 주일 설교만 맡아 주시게 되었습니다. 주일이면, 예배당 통로와 뒤에 보조의자를 놓고도 모자라 강단 앞 바닥에까지 나와 앉아 예배드릴 정도로 사람들이 빽빽이 모여 들어 말씀을 경청하는 모습에 갈급한 영혼들이 파리에 얼마나 많은가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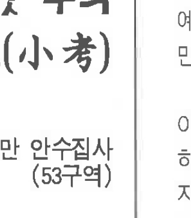
서울에서 주일이면 항상 뵙던 그 모습, 그 음성을 파리의 한 작은 한인교회(그러나 파리에선 가장 큰 교회)에서 뵙고, 듣게 되니 저희에게 이건 정말 감격 그 자체였습니다. 10회에 걸쳐 기독교 본질에 대한 말씀을 시리즈로 해 주셨는데, 초신자나 연륜 있는 성도나 유학생, 주재원 모두에게, 또 타교인들에게까지 어느 집사님의 표현을 빌리면 '정말 환상적'인 기간이었습니다. 아쉽게도 기한이 되어 임 목사님께서 떠나신 후 말씀은 테이프에 담기어 되새김질용으로 또는 전도용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서울에 돌아와 가끔 TV에 비치는 파리의 정경을 볼 때면, 문득 그 안에 들어가고 싶은 충동을 느끼곤 합니다. 그리고 제 뇌리 속에는 아직도 생생한 한 길이 다시 지나갑니다.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 속의 하늘같이 짙푸른 하늘 아래 서 있는 서로 독특한 모양의 다리들, 아직 잠들어 있는 파리의 기막힌 세느 강변을 따라 주님께 달려 나갔던 그 길이…. 그로 인해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그 맛과 기쁨을 알게 되었고, 맛난 음식이 있으면 좋은 사람과 나눠 먹고 싶듯이 자연스럽게 남편이 동참해 주면 좋겠다는 소원이 생겼으며, 하나님은 예상보다도 훨씬 빨리 응답이란 선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욱 감사한 것은 파리에서 함께 섬기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귀국한 다섯 가정이 지금 모두 주님의교회에 다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직업과 환경, 신앙경력과 전에 섬기던 교회들은 다 다르나 모두 그때 그 은혜의 자리에 있었던 자들이었으며, 우리들 스스로도 이렇게 한 교회를 다시 섬기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던 일입니다.

물 흐르듯 자연스럽고, 편안하면서도 경건한 예배 분위기, 커피 봉사에서 주방 봉사까지 성도님들이 함께 봉사하는 모습이 너무나 신선했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결코 적은 수라 할 수 없는 규모임에도 모든 것이 조용한 질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은 뒤에서 드러나지 않게 열심히 기도하며 섬기는 일꾼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 우리들은 또 한 번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은 역시 임 목사님의 전 인격과 인품에서 우러나오는 살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파리의 그때 그 자리에서의 말씀 속에서 이미 지금 이곳에로의 초대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이 지금에서야 듭니다. 또 한 가지, 다섯 가정 중 네 가정이 희한하게도(?) 거의 한 동네에 모여 살게 되다 보니 한 구역 식구가 되었고, 그 동안 넉넉하게 앉아 계시던 분들의 자리를 많이 좁혀 드리게 되어 미안한 마음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첫 시간, 초면임에도 이미 알고 지낸 것 같은 편안한 느낌을 주는 집사님들과 참 어찌 이리도 조화롭게 모이게 해 주셨나 싶게 잘 어우러지는 면면들 못지 않게, 찬송을 할 때면 절로 화음이 맞춰져 나오는 멋진 구역에 인도해 주셨음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주시되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를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때마침 신설된 3부 성가대의 대원 모집에 마치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 다섯 가정 거의 모두가(정확히 4½)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연습 시간조차 우리에겐 은혜의 시간이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을 충만히 누리는 기다림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배와 성가대에서, 성경 공부와 구역 예배에서, 또 섬김의 자리에서 제 옆의 집사님들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참 신기하기만 합니다. 아직은 왜 이렇게 해 주셨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저 다 알게 될 그때까지 기대감을 갖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신앙 생활을 계속해 나갈 수 있길 기도할 뿐입니다.

특집 / 섬기는 자의 기쁨



차량안내부

'오라잇'부의 소고(小考)

박시만 안수집사(53구역)

작년 초에, 당회로부터 통보 받은 부서는 차량 안내부였고, 안내를 시작한 첫 주일에 어떤 집사님으로부터 유쾌한 목소리로 받은 인사는 "오라잇 부장" 이었다. 차량 대수가 지금의 절반 정도였을 때니까 20명 남짓의 부원들과 여유를 부리며 '오라잇' 봉사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작년 하반기에 접어들며 갑자기 차량이 늘기 시작하자 우리 부서는 우왕좌왕하기 시작하였고, 연말쯤에는 모두가 신경줄이 팽팽해지기 시작하여 팔 휘젓고 "오라잇" 하기에 정신들이 없었다.

새해를 앞두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갈 수 없다는 생각에 고심했다. 봉사자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만큼 증원을 위한 기도를 시작했다. 또한 대부분의 차량이 예배 시작 10분 전에 몰리는 것을 어찌 할 도리가 없는 만큼, 우리가 효율적인 안내 시스템을 만들기로 했다.

해가 바뀌자 놀랍게도 차량 안내 봉사를 지원한 인원이 40여 명으로 배가 되었고, 4조로 나누어 지역배치를 하는 등의 준비를 했다. 그런데도 도무지 뭔가 매끄럽지 못했고, 부원들의 지친 표정이 계속되었다. 따라서 교우들과 사소한 감정의 충돌이 생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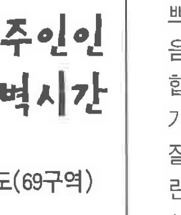
절대 있어서는 안될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생각에 불안해지기 시작했지만 뭔가 잘못 되어가고 있다는 문제의 답은 찾지 못하던 중에, 임영수 당회장 목사님으로부터 그 해답을 받았다. 주일날 차량 봉사로 인하여 예배를 소홀히 하면 자신의 믿음에 문제가 생기고 결국은 신앙 생활의 본말이 전도 된다는 권면의 말씀이었다. 다시 말해 봉사가 아무리 힘들지만 그래도 자신을 위한 예배가 우선 되어야 한다는 뜻이고 바로 그것이 찾던 해답이었다. 모든 차량 안내부 집사님들과 함께 다짐을 했다. 봉사하기 전, 예배 참석 시간을 꼭 지키고, 또한 더 일찍 나와 우리만의 기도 시간을 가진 뒤 주일을 시작하기로 했다. 지금 우리 부원들에게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남들은 모른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도 남들은 모른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교우 누구 할 것 없이 이 교회로의 첫 걸음이 있었듯이 우리 교회를 찾는 사람마다 처음 만나는 사람이 우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걸음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계셨고, 그 걸음을 처음 맞이하는 자리에 우리가 섰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난날 손짓으로만 유도했던 우리가 부끄러워졌다. 그리고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중주차 했다가 예배가 끝나자마자 달려나와 차를 이동해주는 그분이 감사했다. 주차할 수 있는 자리를 넓혀 주기 위해 일부러 학교 담 뒤쪽 뚝방길에 차를 세우고 걸어 들어 오시는 그 장로님이 존경스럽다.

예배 시작한 뒤 도착해 당황해하는 그분으로부터 어린 시절 지각하고 엄한 선생님의 꾸중을 두려워하던 몸짓을 본다. 꾸지람 듣더라도 교실로 들어 갔듯이 예배당으로 뛰어들어가는 그 뒷모습이 아름답다. 병중에서 회복되어 다시 보는 얼굴이 반갑고, 신랑 신부가 되어 나타나는 얼굴과 첫 나들이 하는 새 아기도 예쁘다.

누구나 다 어려울 때인데도 애써 웃는 얼굴로 손짓을 보내는 그분께 감사한다. 그리고 변화된 40여 우리 부원들의 기쁨에 찬 헌신이 무엇보다 기쁘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사회의 어떤 위치에서 어떤 막중한 일을 하는 신분인지를 알고 있기에 그 노고가 아름답다.

"하나님! 하늘나라에서는 무엇을 타고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훗날 그곳에서 다시 한 번 '오라잇!' 하는 기회를 주십시오. 지금 우리 부원 모두 열심히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주방부

주방 보조가 주인인 새벽시간

공종서 성도(69구역)

교회라는 곳에 처음으로 나온 지 7개월쯤 지나서였습니다. 성경 속에는 무수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들이 있었는지 잘 몰랐습니다. 또한 그 말씀 하나 하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1997년 2월 초순경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하루 일과를 마치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 대화의 시간을 갖고 있었습니다. 낮에 있었던 일들이 필름처럼 지나가는 가운데 말씀에 불순종한 부분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 『요일 1:9 a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라는 구절을 믿음으로 적용하지 못한 저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 죄송합니다"하고 다음 말을 잇지 못하고 있다가 "하나님 제가 이러한 잘못을 했는데 무엇을 시키십시오. 그러면 잘못의 대가를 제가 기꺼이 치르겠습니다." 얼마나 어린 아이 같은 기도였는가? 아마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나는 다른 일은 전혀 못하고 잘못의 대가만을 치르는 것으로 평생을 다해도 못할 텐데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중에 늦은밤, 아마 밤 10시가 가까운 시간이었는데, 전화가 걸려 와서 받아보니 당시 주방을 담당하시는 이정원 권사님께서 전화를 거셨습니다. 권사님께서는 새벽에 주방 봉사할 남자 성도님을 찾고 계신데 저에게 그 일을 부탁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주방 봉사를 하고 싶기도 했고, 기도중에 기도가 응답된 것에 대해 감사함으로 권사님과 여러 집사님들과 함께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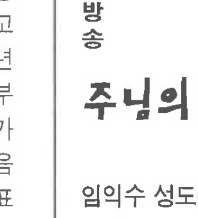
주일날 새벽 교회 문을 여는 기쁨이랄까 - 공부는 별로 못하지만 학교에는 일찍 가는 학생의 습관으로 - 아무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조건 중에서 지극히 작은 부분을 주일날 새벽에 사용하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오늘도 무우를 썰고 커다란 가마솥을 닦고 물을 끓이고 은혜의 국수 국물을 준비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일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힘든 일은 지금도 그렇지만 주방 보조로서 새벽에 구역 식구(그 주일의 주방봉사 담당)들에게 이런 저런 일들을 하라고 지시하는 것입니다.

새벽 5시 40분경에 시작되는 일 속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해야 할 일들이 나로서는 선명히 보이고 봉사 구역 식구들은 주방 일이 조금 생소하므로 어쩔 수 없긴 한데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벧전 4:11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하셨는데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는 착각이 내 안에 있는 것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나 "종서야, 나를 바라보라"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 모두의 소망이기에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특집 / 섬기는 자의 기쁨



테이프판매및방송

주님의 봉사

임익수 성도(17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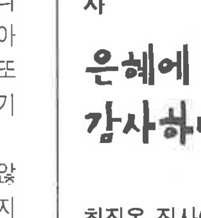
원고 부탁을 받고 과연 내가 하고 있는 봉사가 남에게 알릴 만한 것인지 그리고 알린다면 무엇을 써야 할지… 이런 고민 속에서 2주일을 보냈습니다. 보시는 분의 넓은 이해를 구하며 제가 맡고 있는 부분부터 말씀 드리면, 목사님의 수요 성서강해와 주일 설교 말씀을 녹음하여 외부에 제작을 의뢰하고, 제작이 끝나면 주일에 판매를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우편으로 신청하신 분들에게 테이프를 소포로 발송합니다. 덕분에 참석하지 않던 수요 성서강해까지 듣게 되어 정말로 감사할 일입니다. 물론 저 혼자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집사님들과 청년부 형제들의 도움으로 테이프 판매 봉사를 감당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 지면을 빌어 그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테이프 판매 및 방송 봉사를 시작한 것은,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정말로 주님을 위한 봉사가 무엇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저를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주님을 위한 구속의 삶을 통하여 느끼는 기쁨을 조금이나마 맛보게 해주셔서 항상 기쁨으로 봉사할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이 가끔은 회사 일에 너무 지칠 때는 꾀가 나기도 하고, 나만 너무 일(?)하는 것 같아 골이 날 적도 있지만 그때마다 여러 교우님들과 교역자분들의 따뜻한 격려 한 마디가 저를 원래의 궤도로 되돌려 놓곤 합니다.

봉사를 통하여 제가 경험한 주님에 대해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2부 예배가 3부로 늘어나며 1부 예배가 7시30분으로 앞당겨지면서 아직 주일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 익숙지 않을 때의 일입니다. 자명종의 알람 소리에도 불구하고 예정 시간보다 45분이나 늦게 일어나, 세수할 겨를도 없이 눈곱을 휘날리며 달려 가면서 오늘은 1부 예배에 참석하기는 불가능하겠다고 생각하며 교회에 도착하여 막 설교 테이프를 진열하고 있는데, 그날따라 방송부장 고정록 집사님께서 1부 예배가 앞당겨진 것이 걱정스러워 일찍 나와 계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고 집사님의 도움으로 테이프 진열을 끝내고 나니 1부 예배가 시작되려면 아직 10분이나 여유가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며 가슴에 넘치는 주님에 대한 감사와 이런 작은 봉사도 주님이 주체이심을 깨닫고 오히려 저는 주님이 저희에게 주시는 봉사에 성도로 협력하는 자일 뿐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아침 세수도 1부 예배 때 주님이 책임져 주셨습니다.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녹음하는 것은 녹화가 아닌 생방송이기 때문에 한 번 방송사고(?)가 나면 되돌릴 수가 없어서 늘 긴장하게 됩니다. 주일날 테이프 판매와 녹음, 두 가지를 다 하는 것이 조금 힘겨워 한 달 전쯤 주일 예배 녹음을 청년부 형제에게 부탁한 후, 그 다음 주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날 따라 이상하게 다른 사람에게 녹음을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 2부 예배때 녹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부 예배 방송 담당자에게 제가 녹음을 하였으니 청년부 형제가 오더라도 녹음하지 말라고 부탁을 하고, 3부 예배시에는 교회 사무실에서 서류 정리를 하고, 3부가 끝난 다음에야 그 형제를 만나게 되어 내가 대신 녹음을 해서 심심하지 않았냐고 농담을 하는데,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그 형제가 대답하는 것을 듣고 정신이 멍해졌습니다. 녹음을 부탁 받은 형제가 개인적인 일이 생겨서 3부 예배 참석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제 핸드폰에 메시지로 남겨 놓았으나, 그날따라 메시지를 삭제하다가 잘못하여 전부 다 삭제해 버려 연락을 받지 못한 상태로 제가 우연히 녹음한 것이 사고를 막게 된 결과가 되었습니다. 잘못하면 한 주일 설교 테이프가 빠질 뻔한 사고를 막게 된 것을 다행으로 여기며 가슴을 쓸어 내리면서 다시 한 번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조용히 기도 드립니다.

주님! 어리석은 저때문에 자꾸 신경 쓰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주일 예배도 주관하셔야 하고 여러 성도들의 기도도 들어 주셔야 하는데 괜히 저때문에 귀찮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 주님의교회를 사랑하셔서 사고 없이 이렇게 봉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아멘!



꽃꽂이봉사

은혜에 감사하며

최진옥 집사(2구역)

지나간 나날들을 돌아다 보면, 두 줄기 감사의 눈물이 뺨 위에 흐르고 지금까지 붙잡아 주신 주님의 은혜가 주마등처럼 뇌리를 스치고 지나 갑니다.

제가 주님의교회와 인연을 맺은 지도 어언 10년이 지났습니다. 89년 이은영 집사님의 전도로 강남 YMCA로 예배를 드리러 다니기 시작할 때는 교인이 100여 명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너무나 많은 발전을 거듭한 주님의교회와 더불어, 저도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 덕분으로 거룩한 예배 준비에 10년째 동참하고 있으며, 그동안 너무나 많은 성장을 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한국꽃꽂이협회 가향회 회장, 사회교육원, 문화센터 강사 등 여러 분야로 저를 발전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살면서도 감사함을 게을리 했고 한량 없는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도 세상을 향한 탐욕으로 더욱 바쁘게 움직였으며 기도하는 마음이 너무 부족하였습니다.

주님보다는 나의 능력과 지식을 더 신뢰하였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사람을 더 의지하면서 편협한 이기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지 못하고 연수는 더해가지만, 영적인 진보를 이루지 못하는 죄인이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작년 저희 가정에 큰 위기가 닥쳐 왔습니다. 생사를 헤매는 아들의 고통 앞에서 주님께 울부짖으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동안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늘 저를 붙잡아 주셨듯이 이번에도 주님께서는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주셨으며, 아픔 대신 사랑과 믿음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로 새 생명을 얻은 우리 가족은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은혜의 간증자로 살아가리라 다짐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또 이기적인 삶으로 되돌아 가는 저를 발견하고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죄악된 영혼을 씻어주시고 헛된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일로 이끌어주실 당신께 의지합니다."

여름수련회

99 교회학교 여름수련회 풍경

각 부서 교역자들이 그림

영아부

꼬맹이 27명과 14명의 교사들이 어우러져 여름 성경학교를 열었다. 해가 갈수록 교사들의 역할과 참여도가 성숙해짐을 느낄 수 있었고, 부모님들 또한 함께 애써주신 멋진 성경학교가 되었다. 더욱 감사한 것은 오전까지 내리던 비로 교사들은 "주~님!!!"하며 소리없는 합성을 질렀지만, 오후에는 뽀송뽀송한 날씨가 되어서 신나는 물놀이로 성경학교를 마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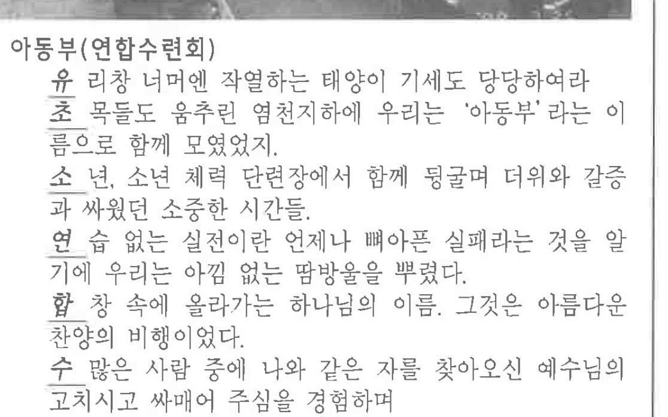
유아부

매주 잔칫집 같은 유아부실에 더 크~은 잔치가 열렸다. 함께 밥을 먹고, 열심히 만들고, 이야기 듣고, 뛰고, 인형극을 보고 나니 아이들과 함께 하는 즐거운 하루가 금방 지나갔다. 또한 미디어 활용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부모님들을 만날 수 있었음도 감사드린다. 둘째날은 수영장으로 풍덩! 몸도 시원, 마음도 시원한 수련회를 즐겁게 마감하였다.

유치부

'씨랜드' 화재 사건의 영향인지 예년에 비해 적은 수의 아이들이 모여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유치부실에서, 운동장에서, 롯데월드 수영장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어린이들과 선생님들은 마냥 즐겁기만 했다. 또한 즐거운 놀이와 찬양, 성경학습을 배우면서 예수님을 만났다. 잠자리에서 엄마를 찾던 아이들도 선생님과 헤어질 때는 섭섭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즐거운 성경학교 내내 함께 하신 성령님! 너무 너무 고맙습니다."



아동부(연합수련회)

유 리창 너머엔 작열하는 태양이 기세도 당당하여라
초 목들도 움추린 염천지하에 우리는 '아동부'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였었지.
소 년, 소녀 체력 단련장에서 함께 뒹굴며 더위와 갈증과 싸웠던 소중한 시간들.
연 습 없는 실전이란 언제나 뼈아픈 실패라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아낌 없는 땀방울을 뿌렸다.
합 창 속에 올라가는 하나님의 이름. 그것은 아름다운 찬양의 비행이었다.
수 많은 사람 중에 나와 같은 자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고치시고 싸매어 주심을 경험하며
련 단시키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렸다.
회 초리보다 더 강력한 사랑으로 다가오셔서 기도의 무릎을 꿇고서 섬김의 모습을 사신 선생님들에게 감사드린다. 그리고 귀한 시간을, 소중한 동역자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7면으로)

청년 2부 전도여행을 마치고

김원재 전도사(청년 2부)

전도여행 준비 99년 청년 2부 여름수련회를 생각하는 중에 새로운 형태의 수련회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지난 겨울수련회가 교회라는 장소의 제약성 때문에 여러 면에서 어려움에 처했던 것을 기억하였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여름수련회는 좀 새로울 필요가 있다는 생각으로 기도하는 중에 우리들의 이런 단순한 생각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전노여행에 대한 비전을 허락하셨다. 이 비전이 전도여행의 준비의 시작이자 진부였다.

전도여행일정(8월 10일~12일) 이번 전도여행지는 전라북도 군산과 익산 그리고 그 두 도시의 가운데 지점인 옥산이었다. 33명의 사람들이 군산팀과 익산팀으로 나뉘어서 각각 반포터미널에서 8월 10일에 서울을 떠났다.

구체적 일정은 다음과 같다. 10일 오후 군산팀은 4개조로 나누어 전도를 시작했다. 각조는 군산 시내 땅밟기, 군산의료원 전도, 군산 시청에서의 중보기도 및 자료 수집, 군산 시장 땅밟기를 하였다. 처음에는 두려운 마음도 없지 않았으나 점차적으로 확신을 갖고 행하게 되었다. 같은 시간에 익산팀은 원광대학교 캠퍼스를 중심으로 땅밟기와 전도를 하였다. 여기서 땅밟기란, 여리고성을 돌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전도할 지역을 돌며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를 바라며 그 지역과 그 지역 사람들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는 정말 그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거의 모두가 처음 가는 도시인 군산과 익산을 돌며 중보기도하고 전도하였다. 하루 일정을 마친 후 두 팀은 옥산 남내리의 남내교회에서 만나게 되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 남내교회는 우리의 뜻과는 무관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이었다.

11일은 군산팀과 익산팀이 함께 남내교회 주변의 3개면 10개 마을을 돌며 전도하였다. 여러 조로 나누어 활동하였는데, 이 날의 기온은 대단하였다. 그럼에도 우리의 청년들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는 하루종일 뜨거운 햇살 아래(섭씨 35도) 걸어다니며 전도하였다. 저녁 나눔의 시간에 청년들은 하루의 전도 활동에 대해 이야기 하였다. 전도를 통해 자신의 신앙을 확신하게 되었다는 사람, 난생 처음하는 전도인지라 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말을 해야할지를 몰라 혼났다는 사람 등등 전도의 어려움과 감격에 대해 여러가지를 서로 나누었다.

12일에는 다시 두 팀으로 나누어 아침 일찍 군산과 익산으로 떠났다. 그곳에서 첫날보다 훨씬 확신에 찬 노방전도를 하고 기쁨으로 서울로 향하였고 저녁에 교회에 도착하였다. 그리고 이날 밤에는 교회에서 감사와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일박수련회를 하고 13일 폐회하였다.

전도여행을 돌아보며 2박 3일의 짧은 기간이긴 했지만 정말 강행군이었다. 그중에서도 수면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하루 일과를 종료하고 취침하는 시간이 이틀 연속 자정을 넘겼는데 수면장소가 예배당이었기 때문에 새벽 4시경에는 일어나야만 했다. 그리고 하루의 걷는 거리가 평소의 5배를 넘었는데, 각자의 짐을 들고 더위 아래에서 전도대상자들을 만나느라 몇 배의 긴장을 하고도 대부분의 이동을 도보로 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꼈고, 마음 속의 복음에 대한 열정을 확인하였으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결코 우연도 아니며 우리의 힘도 아님을 깨달았던 것이다. 그래서 두려움 속에서 시작한 전도여행은 전도의 경험도 소중했지만 신앙의 내적 확신을 더욱 소중한 것으로 간직하는 좋은 기회였다.

신앙 클리닉

Q : 지난 주일에 목사님께서는 설교에서 믿음과 행함이 일치되는 신앙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생활의 현장에 돌아오면 이를 행하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또는 각자의 생활 터전에서 적용되는 오래된 관행과 조직의 이익 최대화라는 상반된 목표를 접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우리 기독교인은 어떻게 처신하며 사회생활을 해야 할지 혼란스럽습니다. (질문자 : 46구역 김대현 집사)

A : 성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사는 세상을 선하고 아름다운 세상이라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인간이 사는 세상은 불의와 죄가 있는 현실이라는 것을 성서는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간 세상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찾아 오셨습니다.

오늘의 우리의 사회 역시 정의로운 사회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양심적인 사람도 적응해 가기 어려운 사회입니다. 하물며 그리스도인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도 포기하지 않으신 세상을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정의롭지 못한 사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사회에서 "믿음과 행함"의 일치를 이루며 산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과 행함"의 조화를 이루어 가도록 힘써야 합니다.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무엇을 한다 안 한다, 무엇을 지키고 안 지킨다"라는 율법적인 사고로 생각하지 말고 다음과 같은 의미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1) 먼저 개인적 차원에서
  ① 나의 삶에 구원 받은 자의 열매가 있는가?
  ② 나에게 다른 사람에 대한 긍휼과 자비가 있는가?
  ③ 나에게 다른 사람을 섬기고자 하는 겸손과 행함이 있는가?
(2) 사회적 차원에서
  ① 나는 청지기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② 나는 최소한 나의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가?
  ③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 받고 있는가?
  ④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의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지는 않는가?
  ⑤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삶의 현장에 나를 있게 하시는가? 그분이 나와 함께 무엇을 하시고자 하시는가?

믿음과 행함은 계명의 어느 부분을 지키는 것, 안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그리스도인다운 인격으로 변화되어가고 있는가? 라는 근본적인 물음에 대한 답변입니다.

(6면에서)

중등부

예년과는 달리 땀흘려 일하는 수련회로 진행되었다. 평소에 대하기가 힘들었던 울창한 산 속에서 풍요로운 자연을 마음껏 접할 수 있었고, 밭에 나가 잡초를 뽑아 보기도 하였다. 서툰 호미질이지만 구슬땀을 흘려가며 흙을 만져보면서 창조의 하나님을 다시금 생각할 수 있었다. 또한 수련회 기간 내내 맑고 푸른 하늘과 밤하늘의 별들을 눈이 시리도록 볼 수 있었음을 감사드린다. 무엇보다도 중등부 공동체에 속한 서로의 모습을 돌아보았고, 사귐을 깊게 하였으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동체를 더욱 굳건하게 세울 것을 다짐하였기에 감사한 수련회였다.

고등부

없는 것이 없는 시대이지만, 없는 것이 많은 고등부 친구들을 낯선 공동체로 이끌고 갔다. 친구들의 표현을 빌자면 그곳은 한 마디로 사람 살 곳이 못되는 곳(1층 숙소 : 아기 개구리 가족들과 동침, 2층 숙소 : 평균 25도 유지, 화장실 및 세면대 : 달랑 1개). 그럼에도 수련회는 지금 주어진 환경에 대한 감사로 시작되었고, 정오의 뙤약볕 아래에서 비오듯 땀흘리며 일하는 '너무나 대견한 서로'를 발견하는 시간으로 이어졌다.

열악한 환경을 선택한 2박 3일의 수련회를 한 번쯤 해볼만한 고생이라거나 독특한 프로그램이었다고 말하지 않으련다. 아주 소중한 것을 발견하는 시간이었기에….

교회소식

소년부 전도사 오고 가심

그동안 소년부를 담당해온 손요한 전도사님이 미국 P. S. C. E.(기독교 교육)로 유학을 떠남에 따라 강애경 전도사님이 소년부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강 전도사님은 장로회 신대원 목연과를 졸업하고, 현재 목회상담 Th. M 과정을 이수중입니다.

'성장과 치유' 강좌 개최

'성장과 치유' 강좌가 9월 14일부터 11월 30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소예배실에서 개최됩니다. 강사는 임영수 목사님입니다.

99 여름수련회 마쳐

지난 7월 18일 아동부 연합 수련회를 시작으로 실시된 99 교회학교 및 교구별 여름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끝났습니다. 수련회를 위해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1:1 기도후원자를 모집합니다

입시를 앞둔 고3 학생들을 위해 특별히 기도해 주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다음 기도회(9월 26일 1부 예배후 제1집회실)가 열리기 전까지 신청해주시면 학생들과 1:1로 연결해 드립니다. 자세한 안내와 신청은 김효숙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우동정

▶ 결혼
- 안장숙 · 김진영B 집사(20구역) 아들 규옥(8/16)
- 최형규 · 김선희A 집사(14구역) 딸 지영(8/17)

▶ 출산
- 조은덕 · 황혜선 성도(69구역) / 득녀(유민)
- 홍성준 · 유소영 성도(69구역) / 득남(정빈)
- 차승도 · 오지연 성도(1구역) / 득남(성호)
- 배현식 성도 · 권양순 집사(6구역) / 득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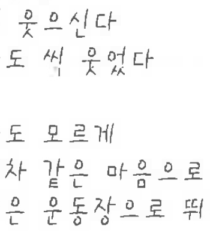
▶ 소천
- 최일 성도(최경호 집사 부친) / 44구역
- 최우진 권사(황덕자 집사 모친) / 46구역
- 하복동 집사(하화주 집사 부친) / 56구역
- 강만점 성도(김정숙 집사 모친) / 12구역
- 김창열 집사(김인숙A 집사 부친) / 17구역

▶ 이사
- 이봉우 집사(61구역) / 구로구 오류2동 156-15 현대타운 3-305 (0331-265-1584)
- 강정구 · 박성연 집사(67구역) / 서초구 양재동 우성A 113-305 (529-2669)
- 박기운 · 성순현 집사(74구역) /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주공4단지 406-1404 (502-2315)
- 한영만 성도(13구역) / 제주도
- 이희순 집사(13구역) / 경북 청도
- 임길자 집사(10구역) / 대전(042-861-6597)
- 박현길 · 임미경 집사(14구역) / 강남구 대치동 쌍용A
- 장득순 · 이은숙 집사(27구역) / 강남구 삼성2동 홍실A 2-502 (544-2834)
- 김원철 · 김임순 집사(37구역) / 경기도 남양주군 와부읍 덕소리 덕소 주공A 305-306 (0346-576-3199)

▶ 개업 · 동정
- 한정웅 · 이혜란 집사(1구역) / 소문난 곱창집 개업(성수역)
- 김기한 집사(4구역) / 기장미역 총판
- 강윤식 · 신정윤 집사(16구역) / 대항병원으로 확장 이전(방배동)
- 김동순A 집사(18구역) / 인도산

▶ 이민
- 조경우 · 정정희 집사(71구역) / 캐나다로 이민
- 유창범 · 김현수 집사(74구역) / 캐나다로 이민
- 김헌 · 조현주 집사(23구역) / 프랑스로 유학
- 좌대진 · 최민애 집사(49구역) / 미국으로 이민

시



우리 선생님

좌주희(소년부)

선생님 옷깃에 백묵 가루
살짝 가서
털어드렸다

선생님께서
씩 웃으신다
나도 씩 웃었다

나도 모르게
기차 같은 마음으로
넓은 운동장으로 뛰어 나갔다

맑고 푸른 저 하늘
새싹 같은 내 마음

마냥 푸르기만 한 내 마음엔
아무도 모르는 즐거움이 있다

함께 즐거워 하고 함께 울라
에서는 원고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향해 다 함께 웃고,
힘든 일도 다 함께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원고를 기다립니다.

음악 이야기

창립 10주년 맞은 서울 모테트 합창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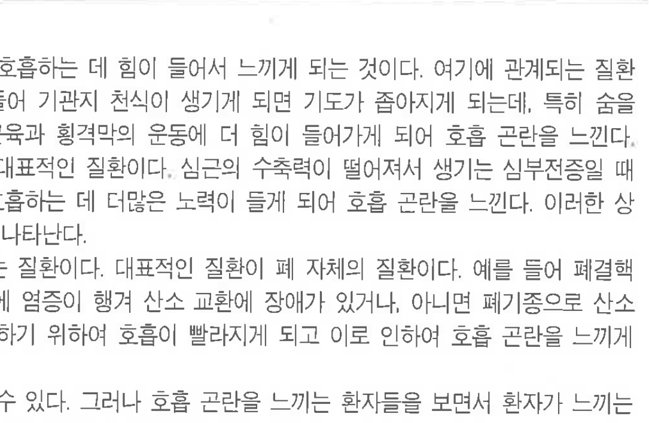
교회 음악을 통하여 기독교 문화 전파를 위해 순수한 열정으로 조직된 서울 모테트 합창단(상임지휘자 박치용 집사 · 2부 성가대 지휘자)이 지난 7월로 창단 10주년을 맞았다.

89년 7월 14일 창단된 이 합창단은 교회 음악의 가장 대표적 양식인 '모테트(Motet)'란 이름을 사용한 것으로부터 알 수 있듯이 30여 명의 단원 전원이 성악을 전공한 기독교인이고 그들이 다루는 레퍼토리도 교회 음악이 주류를 이루는 것이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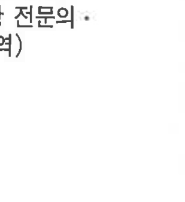
모테트 합창단은 지금까지 40회 가까운 성기연주회와 30여회의 지방 순회연주회 등 모두 230여 회의 연주회를 가졌다. 특히 교회에서의 연주회도 1990년 한강교회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50회가 넘어 복음 전파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지난 7월 2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린 창단 10주년 기념 음악회에서는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b단조 미사'를 연주했는데, 수준 높은 작품을 매끄럽게 소화해냈다는 찬사를 받았다.

모테트 합창단은 대중을 의식하지 않고 순수음악에만 주력하고 있는데, 평론가들로부터 '맑고 깨끗한 음색과 일체화된 감정표출에 정신의 순수함이 배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모테트 합창단은 서울 방배동 대항병원(원장 강윤식 집사)의 후원으로 병원 지하 1층에 150석 규모의 음악홀과 사무실을 사용하는 등 많은 분들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지만 아직도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02-6388-8777).



의학상식



호흡 곤란(2)

김재중 집사
(심장 전문의 · 59구역)

신체 질환으로 호흡 곤란이 오는 경우는 대개는 호흡하는 데 힘이 들어서 느끼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관계되는 질환으로는 폐 자체의 이상과 심장질환이 있다. 예를 들어 기관지 천식이 생기게 되면 기도가 좁아지게 되는데, 특히 숨을 내쉴 때에 기도가 좁아지므로 호흡할 때 흉곽의 근육과 횡격막의 운동에 더 힘이 들어가게 되어 호흡 곤란을 느낀다. 심장질환으로는 심부전증이 호흡 곤란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질환이다. 심근의 수축력이 떨어져서 생기는 심부전증일 때에는 폐내에 압력 증가와 수분 축적 등이 생겨서 호흡하는 데 더많은 노력이 들게 되어 호흡 곤란을 느낀다. 이러한 상태의 호흡 곤란은 폐에 있는 신경 세포가 자극되어 나타난다.

또 다른 신체 질환으로는 산소 섭취를 감소시키는 질환이다. 대표적인 질환이 폐 자체의 질환이다. 예를 들어 폐결핵으로 폐의 손상이 심하거나, 폐렴으로 폐의 일부분에 염증이 행겨 산소 교환에 장애가 있거나, 아니면 폐기종으로 산소 교환이 감소되는 경우에 감소된 산소교환율을 보상하기 위하여 호흡이 빨라지게 되고 이로 인하여 호흡 곤란을 느끼게 된다.

이상의 여러가지 원인에 의하여 호흡 곤란이 올 수 있다. 그러나 호흡 곤란을 느끼는 환자들을 보면서 환자가 느끼는 증상이 신체적인 질환으로 인한 것인가 아니면 심리적 · 정신적인 원인에 의한 것인가를 감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신체 질환에 의한 경우는 그 질환이 진행되어 있지 않다면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있을 때에는 대부분 호흡 곤란을 느끼지 않으며, 운동시나 활동시에만 호흡 곤란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심리적 · 정신적인 요인에 의한 경우는 활동시에는 오히려 호흡 곤란을 느끼지 못하나, 안정시에 혼자 있을 때에 호흡 곤란을 느끼게 되는 것이 다른 점이다.

호흡 곤란을 느끼며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는 심리적 혹은 정신적인 원인일 수도 있으나 전문의의 진찰을 받아보는 것이 필요하다.